(관련서식-2)

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 로 그 램 명	도봉산 숲 유치원		
목 표	미래세대 환경의 주체가 될 유아에게 북한산국립공원의 동.식물을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여 환경적 감수성을 일깨워준다.		
해 설 주 제	북한산국립공원의 동.식물 만나기		
해 설 재 료	꽃, 곤충 등	소 요 시 간	매 회 1시간

프로그램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설레임	3월- 첫 만남	첫 만남과 새싹관찰하기		1시간
자연과 벗하기	4월- 생명이 싹트는 봄!!	꽃향기 맡고, 나무관찰하기	찰흙	1시간
	5월- 애벌레 세상	꼬물꼬물 애벌레 찾아보기	사진자료, 주머니	1시간
	6월- 우리는 달라요.	잎의 다양한 모습 관찰하기		1시간
	7월- 숲 속 패션쇼	자연물로 숲 속 패션쇼하기	도화지, 목공풀, 가위, 줄, 집게	1시간
	8월- 곤충세상	곤충의 한살이 알아보기	사진자료, 주사위, 도화지,네임펜	1시간
	9월- 새의 세상	새들과 친해지기	사운드캡쳐, 감정카드	1시간
	10월-열매의 이동	열매의 여러 가지 이동방법		1시간
만날날을 기약하며	11월- 마무리	나만의 액자 만들기와 마무리	액자, 목공풀	1시간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월 국립공원과의 첫 만남	**3월 첫 만남과 새싹 관찰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3월부터서 11월까지 9회에 걸쳐 숲 체험을 도와줄 국립공원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국립공원선생님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숲속에서 체험을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만남과 새싹 관찰하기'라는 주제로 만난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고 봄에 볼 수 있는 파릇파릇한 새싹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처음 만났으므로 친구들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의 이름을 알기위해서 명찰을 하나씩 만들거에요. 이 종이에(종이를 주면서) 친구가 숲에서 닮고 싶은 자연물을 하나씩 그려보고, 자기이름도 적으면 돼요. 선생님은 새를 닮고 싶어서 새를 그릴거에요. 친구들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것 그려보세요. 모두 잘했어요. 이제 서서히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 따라 해보기'로 몸도 풀고 주변 친구랑 선생님과 마음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푼다는 건 좀 더 친구와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들 원모양으로 서서 옆 친구의 손을 엇갈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오른손으로 왼쪽친구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의 친구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모두 옆 친구의 손을 다 잡으셨죠? 이제 여러분의 양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양손을 흔들면서 '안녕? 나 ◯ ◯ ◯ 야,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양옆의 친구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니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친구를 잡았던 손을 내려 놓으세요. 이젠 선생님을 따라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하면서 3번을 하면서 팔을 쭉 폅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잘 했어요. 다음은 발목을 선생님처럼 천천히 돌려 볼게요. 왼쪽 돌리고 오른쪽 돌립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5번을 합니다. 한번 두 번 ~다섯 번 잘했어요. 이젠 토끼처럼 깡충깡충 10번 뛰어볼께요. 한번 두 번 ~열 번 잘했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몸을 풀어보니까 기분이 더 상쾌해졌죠? 몸도 마음도 풀었으니 도봉산숲속으로 갑니다.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월 국립공원과의 만남	이곳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을(국립공원사진을 보여주며~)국립공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사진을 보니깐 아름답죠? 이곳에서는 꽃이 예쁘다고 꺾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국립공원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겠죠? 친구들도 멋진 이곳에 왔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지켜주세요.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자연물을 이용하여 나를 표현해보기'를 할게요. 우리 주변에는 나무, 풀, 나뭇가지, 돌멩이, 흙, 낙엽, 나무껍질 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물을 직접 주워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쁘거나, 멋지게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굴의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등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접 만들어 보니 어떤가요? 재미난 모습, 이상한 모습, 잘생긴 모습 등 다양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기 모습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 친구 있어요? (직접 한명을 시켜본다)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이 친구가 이야기 잘 해주었어요. 순수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죠? 자연에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시원하게 부는 바람, 신발로 밟는 흙 , 졸 졸 흐르는 계곡물, 열매, 나무, 꽃, 잠자리와 같은 곤충, 다람쥐와 같은 동물 등 많은 것들이 숲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숲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일까요? 네, 따스한 바람이 부는 봄입니다. 봄에는 따스해지므로 여기 저기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파릇파릇 새싹 찾아보기'를 해보아요. 찾은 친구는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 보세요. (새싹을 보며...)새싹을 찾았어요. 새싹이 무슨 색깔인가요?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월 국립공원과의 만남	초록색, 연두색으로 보이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여 조금씩 새싹이 나오고 있네요. 아주 작고 귀여운 새싹을 루페로 자세히 관찰해 볼 것입니다. 이 루페의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이 루페는 사물이 아주 작아 잘 보이지 않아서 열배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입니다. 선생님처럼(직접 보여준다)보면 잘 관찰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한명씩 새싹을 관찰해 볼게요. 봄이라서 새싹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두 관찰을 했는데요. 새싹을 관찰해 보니 친구들 어땠나요?(질문을 던진다) 지금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새싹이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이 새싹이 점 점 커 질 거예요. 이 새싹들은 햇빛, 빗물도 먹고, 땅속에서 영양분도 많이 먹어서 잎도 커지고 예쁜 꽃도 피고, 가을에는 열매도 만들어 질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풀과 나무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해요. 이른 봄이라서 약간은 찬기운도 느껴지고 서서히 피려는 꽃들도 보이는데, 나무들은 여전히 앙상합니다. 친구들을 4월에 만나게 되면 숲은 꽃들이 좀 더 많이 피고 새로운 잎들도 나오게 되어 또 다른 모습의 도봉산이 될 거에요. 오늘 재미있었나요? 혹시 궁금한 것 있나요? 오늘 친구들이 도봉산을 찾아 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즐거운 자연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도봉산에서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파릇파릇한 새싹도 관찰해봤는데요, 기분 좋으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달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안녕히 가세요.
4 / 29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월 봄	4월-꽃향기 맡고, 나무관찰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냈나요?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죠? 우리가 도봉산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꽃향기 맡고, 나무 관찰하기'라는 주제로 자연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무슨 꽃이 피었고, 나무의 잎은 나왔는지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지내는 동안 도봉산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계곡에 개구리가 알을 낳았고(직접 개구리알을 보여준다) 다람쥐가 겨울잠에서 깨어났고,(다람쥐의 사진을 보여준다) 새들이 짝짓기 하기위해 바삐 움직이고, 바람도 따스해지고 꽃봉오리가 많이 커졌어요. 이러한 변화를 선생님이랑 보기위해 숲으로 들어갈거에요. 먼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숲과 관련된 단어를 즉, 다람쥐, 나방, 멧돼지 등을 소리 내지 않고 단지 입모양만 보고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했어요(다람쥐) 무엇을 말했나요? 맞추는 친구는 선물도 줄 거예요. 하는 방법을 모두 알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나비), '○○○'(개나리), '○○○'(개구리) 모두 잘했어요. (선물을 준다)혹시 친구들 중에 앞에서 무엇을 말했나요? 해볼 친구는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친구의 입을 잘 보고 맞춰보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입을 보니까 잘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봄의 꽃 찾아보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기저기 보면 노란빛이 도는 꽃이 보이네요. 개나리가 보입니다. 노랗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 (직접 개나리꽃잎을 높이 던져본다) 꽃잎을 자세히 보면 꽃잎이 한 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꽃잎을 날려 볼게요. 잘 보세요. 멀리 잘 날아가죠? 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재미있죠?(개나리꽃잎을 주워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도와 준다) 잘했어요. 이제 흰색 꽃을 찾아볼까요? 저 큰 나무에 여러분의 손바닥만 한 하얀색의 꽃이 더 활짝 피었네요. 땅에 떨어진 잎을 한 장씩 주워볼까요? 하얀 목련 잎에다 얼굴을 그려보와요. 손톱이나 작은 나뭇가지로 만들어 그려볼게요. 이쁜얼굴, 찡그린 얼굴 다양한 모습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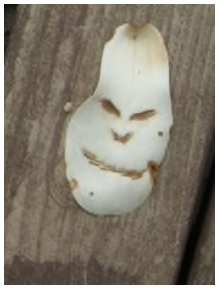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월 봄	  또 이 꽃잎으로 풍선처럼 불어 볼게요. 잘 되지 않지만 천천해 해봐요. 어때요? 목련풍선입니다. 모두 잘했어요. 이젠 아주 자잘한 꽃을 찾아볼까요? 보랏빛으로 활짝 피어있네요. 이 꽃은 수수꽃다리라고 하는데요. 향이 굉장히 진해요. 여러분 수수꽃다리의 꽃향기를 맡아볼까요? 코를 최대한 벌름벌름하면서 향을 맡아야 합니다. 향이 좋죠? 향기를 내뿜어서 나비와 같은 많은 곤충을 부르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쁜 꽃 관찰은 잘 했나요? 이제는 '나무의 껍질을 관찰하고 찰흙으로 찍어 비교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할 나무를 찾아볼까요? 그리고 나무를 안아 보도록 해봐요. (나무를 정하여 안아보도록 유도한다)얼마나 뚱뚱한지, 날씬한지, 거칠고 딱딱하고 부드러운지 만져보세요. 어떤가요?(한명씩 만져 본 느낌을 말 할 수 있도록 대답유도한다) 우리가 찰흙으로 하기에 앞서 나무껍질의 모습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종이와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나무껍질에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문질러 볼께요. 잘 문지르면 나무껍질의 모양이 나옵니다. 종이를 모아볼까요? 나무껍질의 모습이 제각각이네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나무껍질의 모습도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껍질을 보고서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찰흙을 나누어 줄게요. 나무껍질에다가 나무껍질의 모양을 찰흙으로 찍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찰흙으로 찍어 보여준다)자기의 찰흙모양과 옆 친구의 찰흙모양을 비교해 볼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월 봄	우리가 관찰했던 나무껍질이 나무근처에 많이 떨어져 있네요. '무엇을 닮았니?'를 할게요. 지금 부터 나무의 껍질조각을 하나씩 주워보도록 할게요. 주울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무껍질의 모양을 보고 무엇인가 연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줍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게요.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곰을 닮은 것을 찾고서)저는 곰을 생각하고 주웠어요. 잘 생각하면 곰처럼 보이죠? 여러분 하나씩 나무껍질을 주워보도록 해요. (거의 다 주운 것을 확인하고) 하나씩 주웠나요? 주운 나무껍질을 한명씩 들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이 친구가 들고 있는 나무껍질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는지 맞춰보세요. 나무껍질을 보고 서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키가 큰 나무가 우리에겐 많은 것을 준답니다. 깨끗한 공기, 시원한 그늘,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장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등등 나무는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숲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과 동물들에게는 좋겠지요? 이러한 나무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 친구가 되어줄거죠? 오늘 재미있었나요? 혹시 궁금한 것 있나요? 오늘의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다음 달까지 잘 지내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7 / 29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서명)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월 애벌레 세상	5월-꼬물꼬물애벌레 찾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냈나요? 5월이네요.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다들 보내셨죠? 이젠 서서히 더위가 찾아듭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 이 도봉산 숲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답니다. 지난달과 달리 나뭇잎도 정말 많아지고 새가지도 길어지고 꽃도 여러 가지 많이 피고, 풀들도 키가 쑥 쑥 자랐고, 여기저기 자란 나뭇잎을 먹기 위해 태어난 애벌레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숲체험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꼬물꼬물애벌레 찾아보기'입니다. 애벌레를 찾아 관찰하고 공예시간도 갖고 놀이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따라 해보기'입니다. 혹시 친구들 애벌레 모습 생각나요? 나뭇잎을 사각사각 갉아먹으면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애벌레는 어떻게 움직였죠? 이 시간은 애벌레가 되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줄로 서 볼까요? 한 줄로 서서 앞 친구의 어깨위에 양손을 얹습니다. 마치 애벌레처럼 길게 서서 눈을 감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몸을 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안전한 곳으로 움직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단 앞 친구 어깨를 꼭 잡으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애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월 애벌레 세상	애벌레는 움직일 때 어떤 모습 이였는지 상상을 하면서 그대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애벌레가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친구는 무슨 애벌레가 되어 움직였나요? (대답유도) 나비애벌레였군요. 잘 했어요. 이젠 '애벌레와 어른벌레 짝짓기 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모습을 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준다) 어른벌레가 처음부터서 이런 모습이 아니였죠? 암컷과 수컷의 어른벌레들이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어른벌레가 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그림카드 한 장씩 줄게요. 그럼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애벌레일수도 있고, 어른벌레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짝꿍을 서로 만나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맞춰볼까요? 서로 물어가면서 맞춰도 된답니다. 서로의 짝을 잡으면 함께 서기 바랍니다. 짝꿍을 만났으므로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어른벌레의 짝을 만들어주면서)모두 잘 했어요. 이제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곤충의 모습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나뭇가지에 네인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하여 애벌레나 어른벌레를 그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나, 그리고 싶은 거나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려볼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잘 안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카드를 보고 그려도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이 모두 잘 그렸네요. 그림을 다 그렸다면 나뭇가지에 목걸이 줄을 끼우도록 할게요. 길이 조절이 되는 매듭으로 묶어서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목걸이 완성했습니다. 모두 멋진 목걸이 잘 만들었어요.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월 애벌레 세상	나만의 목걸이를 건채로 이것을 봐 주세요. '주머니속의 자연물 맞추기'를 해봐요. 이 주머니에는 자연물이 들어 있어요. 한명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 속 자연물을 만져보고 맞쳐보기입니다. 한명씩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친구가 먼저 해볼게요. "만져보니 무엇인가요?" "솔방울요" "맞는지 꺼내서 볼까요?" "우와 맞았어요! "솔방울의 냄새도 맡아 볼까요? 잘 했고요" "다음 친구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자연물을 눈으로만 보는데 이 시간에는 손의 촉각을 이용하여 자연물을 만져보고 후각을 이용하여 자연물의 냄새도 맡아보았어요. 촉각과 후각을 이용해서 자연물을 만나보니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수많은 자연물은 숲에서 소중한 것들이에요. 자연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니까 동물, 곤충 들이 모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된답니다. 이러한 울창한 숲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준답니다. 우리가 마시는 신선한 공기,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과 그늘,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뭇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갖은 나물, 버섯 등은 모두 숲에 있답니다. 숲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답니다.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속에 새기면서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재미있었나요? 혹시 궁금한 것 있나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잘 지내고 안녕히 가세요.
10 / 29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월 우리는 달라요	6월-잎의 다양한 모습 관찰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네요. 여름이 되니까 숲은 지난달 보다 훨씬 더 울창해 졌어요. 친구들도 한번 숲을 볼까요? 나무들도 키가 커졌고, 나뭇잎도 많아 졌고, 나비, 나방, 벌, 사마귀, 거미 등 많은 숲속 친구들도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잎의 다양한 모습 관찰하기'라는 주제로 나무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관찰하고 나뭇잎을 활용하기 가면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체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 따라 해보기'로 몸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씩 친구들과 떨어져 서 볼까요? 나뭇가지 모양처럼 친구들이 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흔들거리겠죠?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되어주세요. 우와 나뭇가지친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 태풍이 불어요. 어떡할까요?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이 세차게 움직였어요. 자, 팔을 내리세요. 잘 했어요. 몸도 풀었으니 자연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나뭇잎 짝 찾아보기'해 볼게요. 숲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개나리, 진달래 등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같은 나무지만 가지고 있는 나뭇잎, 나뭇가지, 꽃, 열매, 나무껍질 등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 나뭇가지, 꽃, 열매, 나무껍질만을 보고서도 '아! 개나리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친구들도 입을 옷을 보거나, 헤어스타일을 보거나, 말하는 모습을 보고서 친구들을 구별할 수 가 있잖아요. 그처럼 나무들의 모습도 많답니다.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월 우리는 달라요.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준비했어요. (각각의 나뭇잎을 보여주며)이것은 산수유 나뭇잎, 이것은 소나무나뭇잎, 이것은 목련나뭇잎, 이것은 벚나무나뭇잎, 단풍나무나뭇잎, 이것은 은행나무나뭇잎 등이에요. 같은 초록색의 잎이지만 모양은 서로 다르죠? 크거나 작거나, 잎가 쪽이 가시처럼 뾰족하거나, 잎이 둥글거나, 잎이 바늘처럼 긴 잎 등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이 많은 잎들을 이 보자기위에 모아두었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이 잎들을 뜯어서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친구 있나요? 그런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무들은 태풍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질까 봐, 또 동물들이 잎을 먹어 치울까봐 이런 생각을 미리 해서 나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나뭇잎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나뭇잎을 만들어 둔다고 해요. 나무가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외부의 나쁜 영향을 받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잎들이 만들었다니 나무들도 참 똑똑합니다. 친구들 한명씩 나와서 보자기위에 있는 잎들 중에서 같은 잎 두 장씩 찾아보세요. 만약에 찾기 힘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네, 여러분이 모두 2장의 나뭇잎을 가지고 있죠? 한명씩 나와서 2장의 나뭇잎이 맞는지 볼게요. 이 친구는 2장의 잎이 똑같아요. 이 잎은 단풍나무입니다. 다른 친구들에도 잎의 이름을 알려줄게요. 모두 잘 했어요. 좀 전에 보았던 많은 나뭇잎들은 한 개의 나뭇잎으로 되어있었죠? 짜잔 이 나뭇잎을 한번 볼까요? 이 나뭇잎은 아까시나뭇잎입니다. 잎에는 작은 잎들이 10개 이상씩 달려 있네요. 이 잎은 개성이 있네요. 이 아까시나뭇잎을 가지고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볼께요. 두 명에게 아까시나뭇잎을 줄게요.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는 친구가 작은 나뭇잎을 한 장씩 떼는 것입니다. 두 명 친구에게 있는 나뭇잎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두 명 중에 나뭇잎을 먼저 떼어내는 친구가 이기는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잘 했네요.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월 우리는 달라요.	가위바위보 했던 아까시나뭇잎은 아주 작은잎들이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큰 잎을 찾아 나만의 가면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큰 잎이 있어요. 이 큰 잎의 이름은 쪽동백이라는 나뭇잎인데요,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뭇잎이에요. 이처럼 잎들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시나뭇잎은 작은 크기의 잎을 여러 개 모아져 있고, 이쪽동백은 하나의 크기가 굉장하죠? 이 나뭇잎은 큰 잎으로 한 번에 많은 햇빛을 받을 욕심에 이렇게 큰 잎을 만들었나봐요. 이 넓은 잎으로 '나만의 가면을 만들기'해 볼게요. 앞을 보기위해서 눈 위치에 2개의 구멍을 뚫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코 부분도 구멍을 뚫고, 가면을 떨어지지 않도록 입 부분에 나뭇가지를 끼워서 입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나뭇가지는 주변에서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다 만들어진 친구는 가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뭇잎을 활용하여 같은 모양의 잎도 찾아보고, 가위바위보놀이도 해보고, 큰 잎으로 가면도 만들어 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이러한 나뭇잎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이러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나뭇잎의 소중함을 잘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의 체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나요? 혹시 궁금한 것 있나요? 안녕히 가시고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월 숲 속 패션쇼	7월-자연물로 숲속 패션쇼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우리를 찾아왔네요? 이런 더위가 좀 싫기도 하지만 이 숲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의 양분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아 한답니다. 오늘은 '자연물로 숲 속 패션쇼'란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을 모아서 화려한 패션쇼를 할 것입니다. 나만의 패션스타를 뽐내는 시간이 될 거에요. 먼저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 따라 청개구리 되어보기'를 합시다. 선생님의 하는 말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따라하며 몸을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 서!"하면 친구들은 모두 앉아야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눈 떠!", "여러분 앉아!", "여러분 고개를 끄덕 끄덕!","여러분 눈 감기!", "여러분 앉아!", "여러분 옆 친구와 악수하기!", "여러분 머리에 손 올리기!", "여러분 나무 껴안지 마!" (선생님이 직접 모든 행동을 해 보인다) 모두 나무를 껴안았나요? 잘 했어요. 여러분이 약간 긴장한 빛이 도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선생님 말에 집중을 잘 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 몸도 마음도 풀었으니까 체험을 시작해볼께요. 이젠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잎과 자연물 모아 관찰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패션쇼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잎과 자연물을 모아서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 모양의 나뭇잎, 자잘한 돌멩이, 나무껍질, 나뭇가지, 물든 나뭇잎, 작년 열매, 깃털 등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패션쇼를 위해서 주워가지고 오세요. 친구들이 많이 주워가지고 와서 멋진 패션쇼를 할 수 있겠네요. '숲속패션쇼'를 시작할까요? 재료가 준비 되었으니 선생님이 두꺼운 도화지를 한 장씩 줄거에요. 이 도화지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고요, (샘플을 보여주며)친구들은 자신의 모습을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월 숲 속 패션쇼	두꺼운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린 자신의 모습에 자연물을 목공풀을 이용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패션을 위해서는 멋지고 개성 있게 천천히 꾸며 보세요.   완성한 친구는 선생님한테 가져다주세요. 선생님이 패션쇼를 위해서 줄에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작품을 다 모아보니깐 화려하고 멋집니다. 모두들 잘 꾸며 주었어요. 모두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힘들었지만 잘 꾸며주었잖아요. 패션쇼준비로 쪼그리고 앉았더니 다리가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을 풀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중심을 잡아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큰 거랑 작은 거 한개씩 주워가지고 오세요. 크기나 모양은 상관없이 두 개를 주워오세요. 모두 주워가지고 왔나요? 줍기가 힘든 친구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이제 2개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놀이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줄게요. 나뭇가지 하나는 손으로 잡고 다른 하나는 나뭇가지에 균형을 맞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월 숲 속 패션쇼	친구들이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일 수 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균형을 잘 잡혔으면 그 나뭇가지를 들고서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처럼 나뭇가지를 들고 걸어가 볼까요? 모두 잘해냈어요. 두 번째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집중력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놀이인데요. 제일 큰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두 명이 잡도록 합니다. 긴 나뭇가지위에 작은 나뭇가지여러개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협동심도 길러지고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균형 잡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재미있었나요?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 있나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잘 지내길 바래요.
16 / 29	

(관련서식-3)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숲 유치원**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월-곤충의 한살이 알아보기

8월
곤충 세상

친구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시원한 바다에 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시원한 바다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숲에 왔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아질것입니다.

오늘은 '곤충의 한 살이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곤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궁금하고, 좋아하죠? 숲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곤충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관찰도 하고 놀이도 하는 시간이 될 거에요. 먼저 '선생님 따라 해보기'입니다.

숲속기차놀이로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숲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서로 연결된 고리처럼 관계가 있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멧토끼와 고라니는 풀이 많이 있는 숲이 필요하고, 솔방울과 잣을 좋아하는 청설모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와 지렁이는 건강한 땅이 필요하고, 나무에 둥지를 만드는 새들은 나무와 잔가지, 깃털, 이끼 등이 필요하고,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숲에서 서로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숲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숲속기차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친구들이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는 것입니다 맨 앞